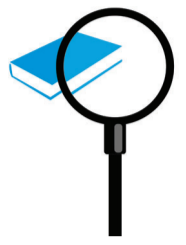


# '아름다움'을 연출하다... '향기'에 몰들다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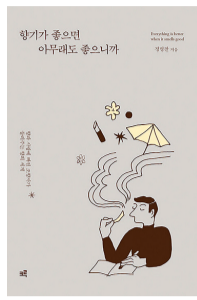
## 향기가 좋으면 아무래도 좋으니까

정명찬 지음

"향기를 주제로 다양한 수업을 많이 했는데, 일반 인들도 향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좋아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향'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단순히 코로 즐기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책을 펴내게 됐다."

정명찬 조향사는 지금껏 다양한 분야에서 향으로 위로받고 향으로 영감을 받았다. 조향 워크숍을 개발하며 향의 신비한 세계를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향을 매개로 마케팅 및 비즈니스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향의 전도사'인 셈이다.

정 조향사가 최근 향을 모티브로 한 책을 펴냈다. '향기가 좋으면 아무래도 좋으니까'는 향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로 풀어낸다. '향과 사람이 빠진 조향사가 들려주는 향의 세계'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일사적인 트



랜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향기의 다양한 면면에 초점을 맞췄다. 솔솔 읽히는 글맛은 어렵게만 또는 무관심하게 여겨왔던 향기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한다.

저자는 이번 책을 펴내기 위해 "다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찾아보고 다양한 사례도 참조했다"며 "외국자료도 많이 참고했는데 서양문화권, 특히 프랑스의 자료 등이 많이 유익했다"고 했다.

원래 그는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했다. 당시 해외 바이어들이 향기와 향수에 문의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향기 가능성을 확인했다.

저자에 따르면 일상에서 대개 향기는 꾸미는 영역으로만 생각한다. "치장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오늘의 기분을 향기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짜증나거나 지친 날 향기로 기분을 북돋울 수도 있는데다 "힘든 기억들을 좋은 향기로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은 향기가 주는 마법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사실 우리나라 건국 신화와 관련해서도 향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곰과 호랑이가 죽과 마늘을 먹고 일정기간 인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많은 식물, 채소가 있었을 것

인데 굳이 죽과 마늘이었을까. 정 조향사의 말은 이렇다.

"(물론 많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마늘이나 죽이 주는 매우면서도 개운한 느낌 일테면 '날카로운 상쾌함'이 있다고 본다. 그 부분을 깊이있게 천착해보면 '향기'와 관련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죽과 마늘은 가장 한국적인 향을 가진 '허브'다. '서양 사람에게서 치즈 향이 나듯이' 마늘과 죽의 향취는 우리와 가장 친연성이 있는 향기일 것 같다."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 형식으로 짜여져 있어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취향에 따라 취사선택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1장은 상징적인 향수와 브랜드를 소개하고, 2장은 인간이 어떻게 향을 쓰고 발전해 왔는지 주목한다. 대표적인 향수 계열 10가지를 소개하는 3장에서는 'Floral: 작은 꽃들의 향연', 'Amber: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등을 만날 수 있다.

4장은 향을 고르고 사용한 뒤의 유용한 정보를, 5장은 향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향의 힘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향수는 어떤 액세서리보다도 편리하다. 복잡하게 착용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손짓만으로 내가 공유했고 싶은 취향을 드러내고 내 고유한 매력을 극대화한다"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패션 아이템에서 나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일상을 향기로 물들이는 방법은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파리 오스모데그에서 촬영한 조향사의 조향 작업(왼쪽) 장면과 저자의 '조향 공방' 공간. <정명찬 제공>



파리 오스모데그에서 촬영한 조향사의 조향 작업(왼쪽) 장면과 저자의 '조향 공방' 공간. <정명찬 제공>

마지막으로 정 조향사는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는 꽃향기라고 말한다. 나무 향(우드 향)에 대한 선호도 높고 달콤한 과일 향도 기분을 업 시키

는 효능이 있어서 호불호가 없어서 추천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크루·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왕의 수명을 줄여라

편용우 지음

우리나라의 역사만큼 역동적인 역사는 드물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너무도 다양한 사건들이 자리한다. 교과서를 통해 알고 있는 역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역사서를 보다 보면 '추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역모 등 대역죄를 대상으로 왕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이때의 재판은 국가의 기강과 사회의 질서를 흔들 만한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안금국안'을 모티브로 조선의 역사를 조명한 '왕의 수명을 줄여라'는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로 전주대 일본어문화학과 편용우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에서 조선 후기 종교사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승훈 박사,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문경득 연구교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반역 사건으로 보는 조선의 이면'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저자들은 '죄인과 중죄인을 다른 심문 기록물'을 토대로 당대의 역사를 파고든다.

저자들은 '추안금국안'에서 흥미로운 사건 10가지를 뽑아 기술했다. 1676년 오승 처경 사건을 다룬 '왕족이 되고자 한 오승' 외에도 1697년 이영창 사건을 토대로 한 '두 명의 진인과 승려들의 군대' 등을 다룬다.

추국정에 끌려온 이들의 면면은 다채롭다. 상당한 지위의 고관대작들도 있고 부랑인들도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모반'이라는 죄에 얽혀 있다는 점이다.

편용우 교수는 "조선 사회의 부족했던 점,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다"며 "실책담조자 승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흐름·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스무 살의 마음 연습

에릭B. 룩스 지음, 김원외 와 옮김

100세 시대. 세상에 태어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느 한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인생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20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20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교의 '마음챙김센터' 에릭 B. 룩스 소장이 쓴 '스무 살의 마음 연습'은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는 스무 살, 10년 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마음챙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과 만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내 최초 명상연구 기관인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의 명상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명상과학의 핵심을 전달해 삶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찾던 중 이 책을 발견하고 함께 번역했다는 점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인정된 최고의 명상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스무 살의 마음 연습'은 브라운대학교 명상과학연구팀이 개발한 대표적인 명상 프로그램인 '마음챙김에 기반한 대학 생활(Mindfulness-Based College, 이하 MBC)'을 소개한다. 책에서 소개하는 MBC 프로그램은 2500여 년 전 붓다가 개발한 16단계 호흡법을 기초로 네 단계로 구성돼 있다. 몸 열기(잠재력을 완전하게 일깨우는 법), 가슴 열기(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 마음 열기(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는 법), 온전함에 깨어 있기(언제나 깨어 있는 법)다.

저자는 인간 경험을 이루는 전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영역을 열거하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을 직시하게 돼 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전한다.



<불광출판사·2만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데일 카네기 성공대화론

데일 카네기 지음, 김태훈 옮김

2000년대를 기점으로 쏟아져 나온 '자기개발서의 범람'을 주도한 이는 누구일까.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미국 출신의 강사이자 '데일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한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을 정립한 대표주자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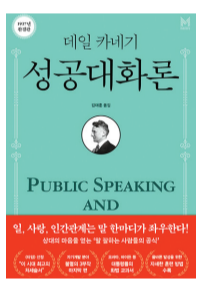
90년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읽은 카네기의 대화론은 말 한마디로 성공 공식을 이끌어 내는 '대화의 바이블'과 같다. 리더들이 주목하는 화법 교과서이자 대중연설, 회의, 협상, 면접 등에도 참조할 만한 내용이 있어 수많은 판본이 나오고 있다.

데일 카네기의 생생한 연구 결과를 모은 '데일 카네기 성공대화론'이 출간됐다.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김태훈 번역가가 옮긴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에 이은 마지막 시리즈로 무삭제 완역본을 수록해 '카네기식 처세술'을 알려준다.

책은 15년에 걸친 연구와 실험, 연구 끝에 알아낸 나름의 처세술 원칙을 강조한다. 그는 쉬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말 잘하는 공식' 중 하나로 '추상적 내용은 구체적 예를 들라'거나 '권위자의 말로 당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라'는 등 간단한 내용을 제시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탈리아 가수들은 목구멍이 있나요?'라고 물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아뇨'라고 대답하려 한다. 일단 눈을 감아라.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라. 호흡이 나오려 하는 느낌을 느껴라. (-) 그때 호흡 대신 말을 하라"

책은 효과적인 발성부터 설명의 법칙, 연설의 방법 등을 알려준다. 호흡하듯 말라는 구체적 예를 통해, 구개음이나 복식 등 과학적인 발성이론법의 '무개감'을 한 층 덜어냈다. 카네기의 말투와 원문의 뉘앙스를 살린 세심한 번역, '카네기 원칙'을 실천하고 기록할 수 있는 메모 페이지도 제공돼 다른 판본과 차별점을 갖췄다.



<책세상·1만1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4년 4월호

2024년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맨발걷기 EARTHING 열풍

- 맨발로 만나는 자연, 생명의 에너지로 치유  
- 광주·전남 맨발걷기 명소들  
- '맨발걷기 전도사' 이승래 지회장

### 꽃릴레이 별헤는섬 청춘하늘

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①  
예향의 뿌리 '공재 윤두서'

호남의 누정 ②-광주 환벽당  
푸르른 사방에 두른 옛 문인들의 교류 공간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②  
장인 3대 손길로 새긴 공은 기개, 광양 장도박물관

### 문화를 품은 건축물-리움미술관

전통, 현대, 미래가 대화하는 명품 미술관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1960년대 중동 산유국 정탈전 앞다 서기 1만104년의 암투

### 예향 초대석

자료의 가치 쌓아온 미술 아카데미스트  
**김달진**  
"오늘의 정확한 기록이 내일의 정확한 역사"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 ④  
**남도는 지금 울긋불긋 꽃대결**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 ⑦  
빼어난 풍광 '해변 옆 미술관' MCASD와 명소들

호남의 누정 ②-광주 환벽당  
하와이 한인 이민자 공동묘지에 4m 위령비 조각 세운 박석원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⑧  
각화동 농산물시장,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땅과 연결되어 있다